

## 금융권 “나주혁신도시 잡아라” 사활건 경쟁

정부자금·운영자금만 수 조원  
은행 지점·출장소 잇단 개설  
지역은행·단위농협 위기감 고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기관의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새로운 시장을 두고 금융권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 지역은행,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영업권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여 ‘나주 혁신도시 대접’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을 필두로 나주 혁신도시에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10여개 금융기관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내고 영업 중이다. 지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은행 역시 혁신도시에 지점을 두고 시중은

행과 경쟁하며 영업활동에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 하나은행이 한전KDN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자리를 잡는 등 혁신도시 선점을 위한 경쟁에 가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처럼 은행들이 혁신도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수 조원에 달하는 정부자금과 운영자금 일부를 운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입주기관과 최대 10만여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심이 완공되면 입주민과 관련 주민들의 여수신 금융 활동이 활발해져 큰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미 농협은행 김주하 은행장이 나주를 여러 차례 찾아 이주 기관에 대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가하면 농협관련 주거은행을 강조하며 영업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은행도 한국전력 사옥 입점을 계기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LH아파트 단지 내 빛가람지점을 이전 확장해 영업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또한 입점 기관을 교두보 삼아 기관은 물론 입주민과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영업활동을 펼치려는 ‘특명’이 내려진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이미 기관별로 주거 은행이 있어 주거 은행으로 비집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역에 내려오는 만큼 일정 부분의 기금을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상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놓고 금융권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영업력이 약한 지역은행과 단위농협 등 2금융권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운

영자금 유치에 실패하거나 입주민 예금·대출금 실적이 좋지 않아 기존 고객까지 잠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혁신도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단위농협인 나주금전농협이 이전기관 직원 및 상가입주자들의 금융서비스를 위해 빛가람 LH 2단지에 중앙호수지점을 개점했으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나주산포농협 역시 혁신도시에 2곳의 영업점을 낼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윤종민 나주금전농협 전무는 “혁신도시에 지점을 낸 시중은행들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입주 직원과 인근 상가입주자들의 입·출금까지 싸늘이 영업하는 바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며 “영업점을 확장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2040년엔 평균나이 60 빠르게 늙어가는 전남

광주는 49세 ‘젊은 도시’

2019년부터 인구 감소세

오는 2040년 광주 인구 10명 중 3명, 전남은 4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고 평균나이 역시 광주 49.4세 전남은 59.4세로 치솟을 전망이다. 평균나이 기준으로 광주는 세종시 다음으로 젊고 전남은 17개 시도중에서 가장 늙은 지역이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도 두 배 이상 높아져 부양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또 광주시 인구는 2018년 151만8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2032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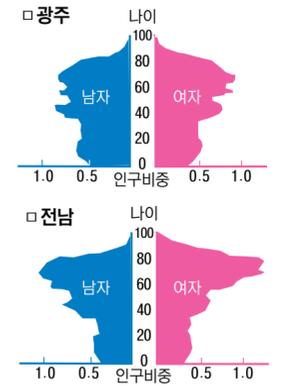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 2013-2040’에 따르면 광주의 총부양비는 2013년 36.3명에서 2040년 72.2명으로 증가하고 전남은 55.7명에서 103.5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즉 전남은 과부양자가 부양자 수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전국의 총부양비는 2040년에는 77.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총인구는 2013년 기준 151만4000명에서 2018년 151만8000명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시작해 2025년 151만명, 2040년에는 143만명으로 2013년대비 8만4000명(-5.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총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며, 65세 고령인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지역 2013년 총인구는 176만 1000명, 2020년 175만7000명, 2025년 174만3000명으로 줄어든 뒤 오는 2040

■ 2040년 인구 피라미드 (자료: 통계청)



년에는 172만6000명으로 2013년 대비 3만5000명(2.0%) 감소할 전망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37만 6000명, 2020년 41만5000명, 2030년 55만9000명, 2040년 7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13년 대비 33만4000명(88.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013년 21.3%, 2020년 23.8%, 2030년 32.2%, 2040년 41.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전국 인구는 2013년 5022만명에서 계속 성장해 2030년에 5216만명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2040년에는 5109만명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인구는 2013년 2489만명(49.6%)에서 계속 늘어나다 2029년 2618만명(50.2%)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는 2021년부터 전체 인구의 50%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U대회 수영장 공정률 78%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200여일 남겨둔 11일 남부대학교 내 수영장 건립공사가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연면적 1만9398㎡(3290석) 규모로 짓는 수영장은 U대회에 이어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손 본다

해마다 수백억 원 투입 불구 인건비 착복 등 끊임없는 부작용  
광주시 ‘원가 용역’ 등 추진·전남은 경영수지분석시스템 구축

광주시와 전남도가 ‘돈 먹는 하마’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한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인건비 착복 논란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1일 일부 시내버스회사의 인건비 착복 논란과 관련해 “전문회계법인

을 통해 원가 용역과 정비비·관리비 인건비의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업체별 적정 인원 산정과 업체 규모별 인건비 산정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운전원 인건비와 연료비를

제외한 정비·관리,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등을 업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일부 문제점도 발생하는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도내 버스업체들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 재정지원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도는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2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분권 교부세의 기준에 의해 유류사용량, 차량대수, 벽지노선 거리 등을 토대로 일률적으로 재정지원금을 배분했으나 앞으로 개별 버스업체의 운송원가, 경영수익 등을 분석해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배분방식과 관련된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에는 전남도의회가 배분기준 개선을 각각 권고 및 요구할 정도로 논란이 돼 왔다.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대상은 시외버스 8곳, 시내·농어촌버스 4곳에 등 총 56곳이며, 차량운행정보와 수입·지출 등을 기입하는 교육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알립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12월 15일 접수 마감**

(※ 15일자 소인 유효합니다)

도박이 된 배추농사 ▶6면 전남체전·학생체전 통합 추진 ▶20면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 GLA 200 CDI 2.14cc 1,500km, 7G-DCT 복합연비 16.2km/l (도시연비: 14.3km/l, 고속도로연비: 19.5km/l), 1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2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